

# '어제의 동지' 안철수-박원순 '6월 정적'되나

안, 장하성 교수에 서울시장 출마 요청

윤여준 "서울·광역단체장 후보 다 내야"

한때 동지적 관계를 유지해왔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서울 시장이 6·4 지방선거에서 경쟁적 관계를 형성할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안 의원이 장하성 고려대 교수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드러났다.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소장인 장 교수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고려대 경영대학장을 지내며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모두 이름을 떨친 진보적 학자여서 안 의원이 추구하는 '새정치'에 부합하면서도 중량감까지 갖춘 몇 안 되는 인사로 꼽힌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12일 "장 교수는 개혁적이고, 호남 출신이고, 서울에서 지방도가 있는 데다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 득표력을 갖춘 만만찮은 후보자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물론 장 교수 본인은 "나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안 의원이 서울에 '필승카드'를 제시하려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박 시장과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이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 50%의 지지율로 고공행진을 하다 지지율 5%에 불과했던 시민운동가 출신의 박 시장에게 후보를 양보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완전

히 달라진 양상이다.

앞서 안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운영위원장도 보도전문채널 뉴스와이 '뉴스1번지'에 출연해 "박 시장과 안

의원 간의 개인적 관계는 개인적 관계일 뿐이고 공적으로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며 서울시장에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윤 의원은 "수도권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도권 승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상식적으로 수도 서울에서 당연히 후보를 내야 하고, 광역은 최소한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박 시장의 재선 성공이 대권 반열에 오르는 지름길이라는 점 때문에 안 의원이 독자후보를 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안 의원이 '박원순 떨치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안철수 신당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떨쳐내면 민주당에서 차기 대선 후보가 없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이 서울에서 후보를 내는 것은 박 시장을 떨어뜨리겠다는 의도"라고 잘라 말했다.

게다가 안철수 신당이 호남과 수도권 등 야권 우세지역을 주로 공략하고, 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광역단체장 후보로 접촉하는 데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당공천 폐지공약 반드시 지켜야"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 등이 12일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기초선정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 아래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시절, 서병수 새누리당 전 사무총장 등의 정당공천 폐지 관련 발언이 소개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박 시장의 재선 성공이 대권 반열에 오르는 지름길이라는 점 때문에 안 의원이 '박원순 떨치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안철수 신당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떨쳐내면 민주당에서 차기 대선 후보가 없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4년에 한번만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주기가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바뀐다. 이는 지방의원 임기 중에 의정비 인상을 한 차례만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안정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결정주기가 1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대신 매년 주민여론조사 없이 의정비 등 지급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정비는 매년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에 따라 기준액을 정하고 의회

의 의견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지급 수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준액의 20% 안팎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지방의회와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 수 있도록 결정주기를 지방의원 임기에 맞춰 4년에 한 번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재정 위기에 매년 전국 지방의회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됐다. 올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눈치보기'로 24개 지방의회 중 7%만 의정비를 인상했거나 작년엔 25%가량이 올랐다.

/연합뉴스

## 올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9200억원

작년보다 5.8% 증가

우리 정부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작년보다 5.8% 증가한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합의했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의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한미 양국이 최종합의한 협정 문안에 따르면 올해 분담금 총액은 지

난해(8695억원)보다 505억원 증가된 9200억원으로 합의됐다.

협정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 5년이며, 연도별 인상은 전년(前年)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2~3% 정도로 가정할 경우 2017~2018년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규모가 협상 막판 알려진 금액보다는 낮지만 우리 정부가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는 높다는 점에서 국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연합뉴스

## 靑 법무비서관에

김종필 변호사 내정

청와대는 법무비서관에 김종필(52)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28회)에 합격,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011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법무비서관에 내정됐지만 아직 출근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법무비서관은 이혜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말 사의를 표한 뒤 공석이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김종필(52)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28회)에 합격,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011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전남도, 국·과장급

59명 승진·전보

전남도는 농업기술원장에 최경주 연구개발국장을 승진·임명하는 등 국·과장급 5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관련영단 18면> 조응익 농업정책과장과 최봉현 방재과장이 직무대리를 폐고 한 직급 오르는 등 12명에 승진했다.

또 양재승 서기관이 도립도서관장에, 오재선 서기관이 F1대회조직위원회 기획공보부장에 임명되는 등 서기관급 26명이 자리를 옮겼다.

행정과장에는 과련 복귀한 홍영민 서기관이 임명됐으며 박봉순 F1대회 지원담당관으로 전보됐다. 이 밖에 박민수 전남농업기술원장과 윤순홍 기후변화지원관, 김용 도의회 행정환경수석전문위원 등 6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오광목기자 kroh@

# 새누리 "지방선거 필승카드 없나요"

"대전 빼고 모두 열세" 수도권-중원 위기론 고조

김항식 2~4월 美체류... 전략공천 고려 가능성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텃밭인 영남과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예상 후보들이 야당 주자들에 비해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자 새누리당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최근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를 자체 분석한 결과, '중원'으로 일컫는 충청·강원권의 충남·충

북·강원지사과 세종시장 모두 새누리당 예상 후보의 지지도가 민주당 예상 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후보에 비해 지지도가 근소한데 앞서는 경우는 대전시장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대 승부처인 서울·경기·인

천 등 수도권에서 비상등이 켜졌다. 서울과 인천은 민주당 소속 현역 단체장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에 아직은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이는 것으로 새누리당은 분석했다.

경기지사는 현역인 김문수 지사가 강자이긴 하지만,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3연임 도전설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나아가 김 지사가 사퇴할 경우, 이미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임원철·정병국 의원이 민주당 예상 후보인 원혜영·김진표

의원에게 모두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관계자는 12일 "영·호남을 뺀 지역적 중립 지역에서는 솔직히 대전 빼고 모두 열세로 나타났다"면서 "이대로 간다면 선거구도와 인물론을 고려한 전략공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 큰 문제는 현재로서는 승리를 기대할만한 인물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당내에서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활우여 대표(인천시장), 정몽준 의원(서울시장), 남경

필 의원(경기지사), 이인제·이완구 의원(충남지사) 등 중진 차출론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서울시장의 경우, 정몽준 의원과 김항식 전 총리가 박원순 시장의 대항마로 꼽혀왔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일단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고, 김 전 총리는 다음달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미국에 체류할 예정이어서 실제 선거판에 뛰어들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서울시장 핵심 관계자는 "후보선 등용(5월 15~16일)에 앞서 예비선거 운동 기간이후 공천 작업이 본격화하는 4월 중순까지 김 전 총리가 미국에 머무르던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신축원룸전문(전대1분)

★전대상대 1분	
등기완료, 공실없음 월수익 420만원 5000수익 최고위치,전면대리석 벽돌시공	
매가 6억3천 (보증금 3천, 용 1억)	
★전대용봉지구모아미래도APT코너	
신축 4층 룬 19개(1층 상가, 4층 주택)	
월수익 850만(1년 1억원 수익) 매가 12억(용 3억, 보 1억)	
전대전문 원룸	
룬 15개 월수익 500,매가 6억3	
전대예술대 2분 코너앞	
룬 13개(4층 고급주택 40평 1개) 매가 7억8천	
즉시입주가 가능 최고위치 월수익 455만원(4층주택 사용가)	
★수원지구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1층임대(18평) 보2천 월110만
3층매매(85평) 3억2천	3층임대(86평) 보3천 월190만
모아엘가 상가 3층	
3층매매(62평) 2억8천	3층임대(62평) 보5천 월150만
세계로 병원 대로면	
학원,병원, 사무실 기타적합	
쌍촌동운천역1분	
원룸형 주택 11평 매3500/13평 매4500	

신한공인중개사 ☎010-6670-9800

### 경매전문

경매 투자 하실 분!  
(공동투자가능)

(상가, APT, 원룸, 토지, 근생, 기타)

권리분석·입찰  
매매·임대·자금

처음부터 끝까지  
컨설팅 해드립니다.

◎경매 직원 구함◎

가족처럼 함께 하실 분

주)대신경매 ☎062-527-7600

###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순을 대로면 149평 은행 2억 감정 3억6천 매도2억9천</li> <li>임동 요한병원 부근 4차선변 상암거리 2140㎡(646) 건물 227평 공시지가 14억7천 매도12억2천</li> <li>금매, 지하철 쌍촌역 사거리 대로면 준주거 377㎡(111평)병원·사육·학원·자동차 정비시설 등 적합 7억6천</li> <li>광주은행 본점 부근 상업지 694㎡(210평)공시지가 11억 6천 매도10억6천</li> <li>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228평 상가와 주택 원룸 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2천에 월 500선 수익 9억6천</li> <li>식당건물 금매 금남로3가 부근 소방도로 접 대지 149평 건평 438평 은행 6억4천 전세 8천에 월 440선 법인이전 7억6천</li> <li>그린벨트 담 담양군 창평면 고속도로 입구 2425㎡(734) 공시가에 매도 3860만원 통용사육·아적장등 적합</li> <li>나주시 봉황면 소재지 대지 119평 주택 30평 5천만원</li> <li>모텔,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지1677㎡(507)건평 422평 객실 48실 대충6억2천 매도 8억3천</li> <li>임야 무안군 풍탄면61890평 평당 2500원 매도 1억6천</li> <li>사찰적합 건물 합평군 월이면 땅 2657㎡(804)건물 2층 57평 은행 2억 기도원 할수 있는 산이 있는 주택과 교환가능 5억</li> <li>전남대앞 신안동 4거리 상업지 대지 446㎡(135)4층 건물 322평 은행 3억 매도 7억2천</li> <li>북구 우산동 상가와 원룸건물 대지331㎡ 건물 1366㎡(413평)은행 6억2천 보증금 8천선 월900만원 매도9억6천</li> <li>전원주택지 청풍동 777㎡(235)1억5천</li> <li>북동 상업지 992㎡(300)오피스빌, 생활주택 등 다용도 8억</li> </ul>
매도·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쌍촌동에 신축중인 기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월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li> </ul>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판

###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초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 공장 금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지 3,305㎡ 건물 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실,1,2층</li> <li>높이: 8m</li> <li>호이스트 3톤 2대</li> <li>전기: 200kw</li> </ul>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학동 계획관리지역 잡종지(8,000㎡) 임야(7,000㎡) 매매가격 3억5천만
신진공인중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